

opusdei.org

# 새로운 바다를 발견

성 호세마리아의 지도 아래 내적 생활의 풍경을 바꾸는 경우의 발견 루카스 부크 저자

2020-8-25

## 새로운 바다를 발견

성 호세마리아의 지도 아래 내적 생활의 풍경을 바꾸는 경우의 발견

루카스 부크 저자

[download pdf](#)

download epub

© 저작권 2018 - 오푸스데이 안내소  
- [www.opusdei.org](http://www.opusdei.org)

---

## 목차

- 머리말
- I. "하느님의 자녀를 위한 첫 기도"
- 간행물: "십자가를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 III. "예수님의 오른손 상처에서"
- IV.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 V.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 에필로그

---

## 머리말

성인들의 삶은 빛이 되어 밤이 되면 우리 삶의 길을 밝혀 준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를 영원토록 포용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거룩한 삶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젊은 사제 시절에 그가 겪은 발견 중 일부에서. 많은 사람이 지적한 것들이,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 여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셨다. 1 이 길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길이다.

자, 이 내적 여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길은 알려진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 분명하게 보인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힘과 깊이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 호세마리아는 「대장간」에서 말한다:

"인간의 사랑에서처럼, 우리는 내적 생활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대는 종종 똑같은 주제를 묵상해야 합니다. 옛날 발견한 것을 재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대는 놀라서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돌이라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흘려 버렸기 때문입

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흡수하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그 주제들은 똑같은 것이 아니므로 - 묵상해야 합니다." 2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은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우리 자신을 열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관상의 길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다. 언뜻 보기에 그 바다는 우리의 일상 풍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다. 지중해는 알려진 바다였다. 성 호세마리아는 '지중해 재발견'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로 들어 가자마자, 넓은 의심의 지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말에 따라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더 많

이 찾을수록, 내가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3

이러한 발견은 하느님이 언제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빛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의 침착한 생각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전에 어둠 속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볼 때, 그는 육체의 시선에 비추어지고, 그가 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자기의 영혼 안에 계몽되어 있으며,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 4 이 페이지들에서는 성 호세마리아가 내적 생활에서 발견한 '지중해'를 살펴본다. 우리는 이렇게 발견한 지중해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5

---

## 각주

- 1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97.
  - 2 성 호세마리아, 「대장간」, 540.
  - 3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대화」, 167.
  - 4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교리교육」 16,16.
  - 5 본서에 수록된 본문(간행물과 에필로그 제외)은 2018년 오푸스데이 홈페이지([www.opusdei.org](http://www.opusdei.org))에 게재되었다.
-